

since 1986

SUNBO FAMILY

2012년 사업계획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2년 8월 15일

vol. 103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전사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수정사업계획 보고 워크숍 개최 [실적 · 사업계획 보고와 강평, 힘찬 결의로 이어져]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해양대학교 산학연 ETRS센터에서 전사 상반기 실적보고와 하반기 수정사업계획 보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최금식 대표이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사 상반기 실적 요약발표(KPI별 실적발표)가 진행되었고, 상반기 실적 보고와 함께 수정사업계획 발표는 부서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후 휴식 이후 '조직활성화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상반기 전사 실적보고에서는 원가절감액 154%, 연구개발 건수 140% 등 4개 항목에서 목표치의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는가하면, 고객불만처리비용, 실패인건비용, 교육이수건수 등의 항목에서는 실적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회사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 유일하게 전

년대비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몇 년간 더 극심해질 경기 불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강평을 통해 수주와 매출은 전 선보가족의 공통적인 목표임을 언급하며 A/S 등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되, 경비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적 보고에 있어 보고를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점검해야 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뜻이 현장에도 잘 전달되어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도전정신으로 신규 아이템과 신규 업체를 발굴하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최금식 대표이사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대표이사 강평에 이어 기념촬영을 끝으로 전사 상반기 실

적보고와 하반기 수정사업계획 보고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힘찬 결의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의식변화와 문제해결능력 함양교육

현대중공업 주최 사외교육에 우리 회사 90명 임직원 참가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와 임원, 현장직, 관리직 직원 90명은 지난 7월 24일 대교육장에서 '의식변화와 문제해결능력 함양교육'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주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분위기 쇄신과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고 현장개선을 실천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고객요구의 만족과 높은 신뢰성 구축을 위한 직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함'이라 밝혔다. 교육은 현대중공업 사외협력사 품질향상 추진팀장인 김종해 부장이 강사로 나서 <위기타파를 위해서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 능률과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의식 함양이 왜 필요한가. - 부정적 사고를 벗어나 긍정의 텃밭을 가꾸라. - 낭비요소 제거를 위한 현장활동은 나의 몫이다.>라는 4개의 소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최금식 대표이사가 가장 열정적으로 교육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하며 사외 교육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민을 던져주므로 임팩트가 강했다며 이런 강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신제품 개발로 선보의 새 매출 창출 의욕

김형오 이사, BWMS 개발 가속도



지난 5월 BWMS(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를 전담 개발하게 될 김형오 이사가 입사하였다. BWMS는 IMO가 2017년부터 제한할 선박 유입수에 대한 미생물 및 독성물질의 규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향후 우리 회사의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항공, 우림전자 기술개발부를 거쳐 독일에서 기술 연수를 마치고 유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계설계, 개발부문에서 실력을 인정 받아온 김형오 이사의 입사로 우리 회사의 BWMS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이사는 입사소감을 통해 BWMS는 개발과정이 좀 더 복잡하지만 흔히 사용되지 않는 오존시스템을 선택하여 개발중이며 향후 까다로운 검사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평공장에서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신제품 개발팀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으며 선보가족 모든 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신제품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UN SUNBO RUN 회사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벌써 여름의 절정에 와 있다. 더위를 탈출하기 위해 다들 휴가를 계획하고 떠나려는 사람들로 분주한 8월. 즐겁고 신나게 보내야 할 휴가가 자칫 방심한 탓에 큰 사고나 상처로 이어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휴가 떠나기 전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일사병이 발생했을 때*

오랜 시간 햇볕을 쬐면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을 일으키거나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보일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로 안정시키고 이온음료나 물을 마시게 한다. 의식이 없으면 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열사병이 발생했을 때*

격한 신체활동을 한 후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 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리는 것이지만 얼음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혈관이 수축돼 몸의 열이 잘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사병이 의심될 때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햇볕에 그을려 화상을 입었을 때*

먼저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거나 찬물에 적신 거즈로 10~45분 정도 열기를 식혀 통증을 줄인다. 화상 연고를 바르거나 화상용 드레싱 거즈를 이용해 상처를 보호한다. 얼음주머니는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염려되므로 10분 정도만 사용한다.

심한 상처로 인해 출혈이 계속될 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피부 및 연부조직 손상시 대처방법이다. 상처가 깊고 선홍색의 피가 박동성으로 분출된다면 동맥손상을 의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우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게 하고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만약 생리식염수가 있다면 상처부위를 한번 헹구어 낸다. 유리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빼내고 거즈나 깨끗한 수건 등으로 눌러서 지혈을 시도하면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그 부위를 고무줄 등으로 너무 세게 묶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요한다.

해파리에 쓰였을 때*

쏘인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된다. 먼저 쏘인 부분을 바닷물로 10분 이상 충분히 씻어주고 남아있는 촉수를 카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독침 반대 방향으로 긁어서 제거한다. 몸이 붓거나 열이 나면 차가운 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 후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는다.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드물게 벌 독에 의한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우선 벌침을 빼내야 하며, 오히려 벌 독의 흡수를 조장하고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침이 피부 속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무리하게 후벼서 빼

내지 않도록 한다.

벌레나 곤충에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얼음찜질하거나 찬 수건으로 덮어준다. 대부분의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가 도움이 되지만, 가려워서 계속 긁다보면 진물이 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응급 상황 시 꼭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

- 119 : 국내 어디서나 통용되는 대표 번호
- 1339 :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을 안내해주는 응급의료센터번호. 전국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해주고 중환자는 구급차를 연결해 준다.
- 122 : 해양경찰청 긴급구조번호



! 급하게 응급실에 오느라 돈이 없을 경우...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제도다.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대학 병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12개월 분할 상환도 된다.
-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최금식 대표이사 성공스토리 SBS에서 촬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을 발굴하여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표창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최금식 대표가 표창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7월 17일에 SBS의 동영상 제작팀이 내방하여 촬영이 진행되었다.

이는 기능 한국인 선정자의 성공 스토리를 SBS방송국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의 직업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동영상은 인터넷 (<http://hrd.korea.chosun.com>) 을 통해 무상으로 시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제작된 동영상은 일선 교사들이 교재로 적극 활용 중이다.



선보의 역사와 함께한 최홍렬 전무이사가 제작진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SUNBO NEWS 선보뉴스

선보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의욕과 패기로 충만한 신입사원 맞이

의욕과 패기로 가득 찬 신입사원들이 지난 7월 16일 우리 회사에 입사하였다. 장동후 신입사원은 "첫 직장은 아니지만 전 직장에서 큰 부상을 당한 이후 오랜 공백기간 후 얻은 직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회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회사에 입사한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쌍둥이 형제(왼쪽사진)가 함께 입사한 권효진, 권효수 사원은 특히 눈에 띈다. "첫 직장에 동생과 같이 입사하게 되어 서로 힘도 되고 '누가 더 낫다.' 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 권효진 사원과 "형과 함께 입사할 수 있게 되어 누구보다 우리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동생 권효수 사원은 한 목소리로 회사에 기여하는 사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 이들이 빠른 업무 적응과 함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SUNBO LIFE 우리는 가족

2012년 선보 FAMILY와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협력사와 상호 이해도 높이고 성장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 모색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에 본사의전실에서 '2012년 선보 FAMILY와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동배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와 우리 회사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성장의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협력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상생의 의지를 밝혔다. 그간 우리 회사는 8개 협력사에 대한 주식, 구정, 하계 휴가자금 약 10억여 원을 조기집행하고, 환경개선 자금으로 미래코팅에 4천만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선양산업에 5천만원 원을 지급하였다. 또 저단가 원자재 구매대행을 위해 인화공업 등에 월간 약 2억 원을 구매대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원자재 구매금액 대출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협력사와 공동혁신 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공법개선의 결과로 얻은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효과 금액의 30%를 협력사에 지원하고 있다. 품질교육과 함께 앞으로는 협력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인력지원도 확대해 안정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1회 진행하는 '협력사 간담회의 밤과 영화, 연극, 야구관람' 등에 대한 협력사 초청도 호응이 좋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산테크, DS제강, 덕광중공업, 다흥밸브, 유경, 해양패밀리, 인화공업, 대명중공업 등 8개사가 참가하여 우리 회사의 동반성장 플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우리 회사와 협력사 사이에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할 것을 확인했다. 한편 간담회 참가자들에게는 행운의 지폐 2달러와 여름용 와이셔츠가 기념품으로 지급되었다.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우수 협력사 탐방

“인재 중심의 기업,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주)태경 | 최홍열 대표



주식회사 태경(대표 최홍열, 부산 강서구 화전동)은 25년간 육상플랜트 및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내 설치업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7월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2011년 4월, UNITI 업체의 PIPE SPOOL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법인 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지난해 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상반기 매출만 70억 원에 이르니 성장세가 괄목할 만하다. 올해 연매출 150억 원을 목표로 전 직원들이 무더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회사로부터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브밴드로서 완벽한 납품을 위해 생산시설도 확장하고 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1천 500여 평의 공장 옆에 1천 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공장 3개동 공사를 준비 중인 것이다. 오는 11월이면 신축 공장까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태경의 성장 배경에는 최홍열 대표의 보이지 않는 열정이 숨어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집보다는 회사에서 밤을 새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한 달에 약 20일을 혼자 회사에 남아 업무를 검토하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다보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다. 다행히 체력이 따라 줬는지 당시는 힘든 것

도 몰랐다고 최대표는 회상했다.

최대표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인간중심,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차별화된 인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줄 모르고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인간중심'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장중심'이라는 것은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공장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들은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고객중심'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원하는 일자에 납품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회사와는 2008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선보의 관리자들과 미팅을 해보면 체계

적이고 짜임새 있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직원들과 관리능력이 선보가 발전한 원동력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장님은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는 탁월한 기업인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찬모임 등에서 가끔 보면 밖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제게는 롤모델이시지요.”

평소에 직원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자. 진정한 프로가 되자.'고 강조하는 최홍열 대표는 우리 회사의 서브 업체로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협력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당신의 2012년 여름을 찾습니다 여름 휴가사진 공모전

선보가족 여러분의 여름 휴가는 어떠했는지요? 유쾌하셨다고요? 폭염에 고생만 하셨나요? 휴가를 보낸 방식은 갖가지겠지만 누구나 이 여름의 기억이 곧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여름 휴가사진 공모전」에 2012년 여름의 추억을 보내주세요.

- 응모대상 : 선보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기간 : 8월 1일 ~ 31일
- 응모방법 : 서버 그림 사진방 → 공모전 → 2012년 공모전에 개인별로 이름 폴더를 만든 후 응모(개인당 3작품 이내)
- 작품선정 : 사진동호회 회원 및 임원
- 작품게시 : 경비실, 식당 및 사보(식당은 액자 게시 후 개인별 지급)
- 시 상 : 대상(3명)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동상(4명)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선정기준 : 가족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와 작품성
- 문 의 : TEL. 051. 260. 5538



2011 대상_ 신승훈(할머니와 손주·손녀)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선보하이텍 영암공장 | 소용운 소장

「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냅시다! 」

AGE UNIT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대 삼호중공업과 현대 군산조선소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도 느끼고 제 업무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작업하시면서 특별히 신경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 특성상 UNIT 자재들이 전량 부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작업 전 자재 체크를 우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작업하다가 자재 문제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큰일나죠. 그리고 안전이죠! 작업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수시로 안전과 관련해 작업자에게 주의

를 시키고 있기에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Q.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그 여파가 생산업체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주업체도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Q. 선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현재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냅시다. 선보패밀리, 화이팅!

Q. 선보하이텍과 인연을 맺은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1년 6월부터 선보하이텍과 함께 하였습니다. 입사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1년이 훌쩍 넘어갔네요.

Q. 하시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현재 영암공장에서 T/TOP 및 PACK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선보유니텍 구평공장 | 정용수 조장

「 때로는 힘들지만 선적을 할 때는 해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

Q. 언제 어떤 계기로 입사하게 되셨나요?

2006년이었지요. 좋은 회사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우리 회사를 알게 되고 입사하였습니다. 어느새 입사 7년차가 되었는데 저에게는 고마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를 소개해주신 분께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Q. 근무하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항상 맡은 일들이 시작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완성해서 선적을 할 때는 해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일을 하며 우리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동료애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늘 바쁘다 보니 서로를 돌아보는데 인색해지지 않도록 동료들 더 이해하고 챙겨주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챙기다 보면 프로젝트도 상하 공감이 더 잘 이루어져서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Q. 다음 칭찬 주자를 추천해주세요.

권태식 반장님을 추천합니다. 살신성인하는 모습과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꼭 칭찬 받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칭찬 릴레이 8월 주자로 뽑히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막상 이렇게 추천되고 보니 부끄럽습니다만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실수 없이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재무	김광수 (8.15)
	최두영 (8.20)
설계부	정준영 (8.14)
1공장	이영근 (8.13)
	권성현 (8.21)
	윤태호 (8.16)
	김규성 (8.06)
	신용화 (8.01)
2공장	박찬수 (8.27)
	김영자 (6.25)
	장세걸 (6.25)
구매	김동관 (7.11)
영업	유무성 (7.11)

구평공장

생산관리	김광옥 (7.10)
	조영화 (8.06)
자재운영	이태욱 (8.21)
자재조달	이동준 (8.17)
구평공장	공대성 (8.25)
	정정배 (8.06)
	이순조 (8.03)
	오경준 (8.28)
	이창복 (6.23)
	하보선 (7.11)
	손대석 (7.14)
	권오용 (7.07)
	이창용 (8.14)
	조상연 (8.17)
	최현철 (8.22)
	유금화 (8.02)

감천공장

해양설계	김형달 (8.29)
	임미해 (8.31)

영도공장

의장생산	표종원 (8.08)
------	------------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경영지원	양운도 (8.18)
자재조달	최동배 (8.05)
품질경영	최경호 (8.13)
설계1팀	고상현 (8.06)
설계2팀	박현수 (8.05)
	이우석 (8.08)
	정순오 (8.08)
1공장	김정민 (8.07)
	노재태 (8.02)
3공장	김츠키 (8.09)

구평공장

자재운영	이태욱 (8.03)
Q.A	김영호 (8.24)

감천공장

해양설계	임훈균 (8.01)
------	------------

영도공장

자재운영	이영근 (8.10)
의장생산	표종원 (8.23)

다른 그림 찾기 A와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